

RESEARCH ARTICLE

A study on the literary features and meditative healing effects of Buddhist scriptures: Focusing on *the Lotus Sutra*

Kim, Seonhwa

Lecturer, Joongang Sangha University, Gimpo, Republic of Korea

불교 경전의 문학과 명상적 치유효과 연구: 『법화경』을 중심으로

김선화

중앙승가대학교 강사

Corresponding Author: Kim, Seonhwa (mir_sunny@naver.com)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potential of reading Buddhist scriptures as both a contemplative practice and a form of psychological healing by examining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and meditative value of *the Lotus Sutra*. Buddhist scriptures employ metaphors, symbols, poetic language, and narrative structures to appeal deeply to the reader's emotions. These literary devices function as mechanisms for emotional arousal, affective awareness, self-reflection, and existential insight.

The paper argues that reading scriptures parallels the structural features of mindfulness practice, enabling practitioners to focus on the present moment and accept internal emotions, thereby promoting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Scriptural reading encompasses both concentrative and insight meditation, incorporating psychological mechanisms that facilitate emotional healing, self-regulation, and the cultivation of compassion.

Based on this perspective, the study proposes that scriptural reading may serve as a meaningful contemplative practice applicable in various domains of modern life, including education, counseling, and personal development. However, as the research primarily focuses on theoretical exploration, future studies should include empirical valid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across different reader groups.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new interpretation of Buddhist scriptures by examining them through an integrated perspective of literary expression and meditative practice, thereby suggesting the potential expansion of Applied Buddhism into the fields of mental health and spiritual education.

Keywords: scripture reading, literary characteristics, meditation, healing, *the Lotus Sutra*



OPEN ACCESS

Citation: Kim, Seonhwa. A study on the literary features and meditative healing effects of Buddhist scriptures: Focusing on *the Lotus Sutra*.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34, 45-58.

DOI: <https://doi.org/10.12972/mpca.2025.34.4>

Received: June 24, 2025

Revised: August 30, 2025

Accepted: August 30, 2025

Copyright: © 2025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현대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복잡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불교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마음과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 왔으며, 불교의 수행법인 명상과 마음치유를 접목하여 심리와 상담, 치유 등 각 분야에서 불교에 기반을 둔 다양한 명상법이 개발되고 있다. 명상은 이미 심리적 안정과 자기 성찰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자비명상 수행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현대인들을 위한 다양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불교신문, 2017.11.28.). 불교의 수행법이 심리치유와 스트레스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안양규, 2019; 송영숙, 2016; 문진진, 2021)은 불교의 명상이 개인의 내적 평화와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불교의 실행현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현상은 마음챙김(Mindfulness) 기반 치유문화라고 할 수 있다(강은애, 2024). 이러한 경향은 명상과 불교상담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장은화, 2015; 강은애, 2024; 윤희조, 2024; 황수경, 2024 등).

불교를 기반으로 한 명상 프로그램은 심리적 안정과 자기 탐색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MBCT),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수용전념치료(ACT) 등 현대 심리치료와 융합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은화(2015)는 미국화된 서양의 불교명상이 불교수행의 본래 의미가 희석되거나 도구화, 상업화되고 심리학적 가치와 절충됨으로써 불교수행의 정체성을 더욱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강은애(2024)는 세속화된 불교명상이 삼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욕망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불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불교 수행법이 중심이 되는 심리치유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불교의 사상과 가르침이 담긴 경전 자체를 수행의 대상으로 삼는 전통적인 방식, 즉 경전 읽기와 독송, 사경(寫經) 등의 수행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전은 불교의 교훈적 내용을 비유와 같은 문학적 표현을 통해 생생하게 전하며, 독자에게 깊은 인상과 감동을 남긴다. 문학적 표현으로 드러나는 경전의 문학성은 독자가 경전의 메시지를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연결된 체험적 지혜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화경』은 붓다의 설법을 서사 구조와 상징적 표현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구성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의미에 대한 인지적 이해와 정서적 공감, 나아가 깊은 자아 성찰에 이르게 하는 대표적인 비유 경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전의 문학적 표현은 ‘경전 읽기’를 단순한 의미 해석의 차원을 넘어, 수행과 내면 성찰을 동반한 명상적 체험으로 전환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불교 경전이 지닌 문학적 특성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전 읽기의 명상적 가치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불교 경전의 문학과 명상 수행의 의미를 『법화경』, 『유마경』 등의 대승경전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경전 읽기가 지닌 명상적 성격과 그 실천적 함의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전 읽기가 명상 수행의 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는 통합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현대인의 심신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가능성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경전 읽기는 일반적으로 독경(讀經), 간경(看經), 독송(讀誦) 등으로 구분되지만, ‘경전을 본다’는 뜻의 간경(看經)은 경전을 읽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간경이란 말 대신에 풍경(諷經), 독경(讀經), 독송(讀誦)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포괄하는 의미의 ‘경전 읽기’라는 용어와 혼합하여 사용할 것이다. 또한 경전을 읽는 수행 주체는 ‘독자(讀者)’로 지칭하며, 본문에서 언급하는 ‘경전’은 모두 불교의 경전을 의미함을 먼저 밝혀둔다.

II. 불교 경전의 문학적 특성

1. 불교 경전의 문학성

불교와 문학의 접점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불교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불교적 관점에서의 접근인가, 문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인가와 같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용문이 그러한 고민을 보여준다.

“대체로 불교문학에 대한 견해는 첫째, 불교의 경전 및 붓다의 가르침에 관계되는 저작물 모두가 불교문학이라는 주장, 둘째, 불교 경전, 불교에 관한 문헌 및 불교적인 것을 표현한 문학 일체, 셋째, 불교적인 관심을 문학형식으로 창작해 낸 문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홍기삼, 1991)

인용문에 따르면, 불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문학작품을 불교문학으로 보는 협의의 개념과 불교의 경율론(經律論)의 삼장(三藏)까지도 불

교문학으로 보는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서영애, 2002). 불교의 경전을 문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나, 앞에서 언급한 ‘불교문학’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불교의 경전 역시 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불교의 경전을 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기선은 「불전에 나타난 문학적 비유」(2012)에서 붓다가 중생교화의 현장에서 사용하신 비유는 ‘붓다의 깨달음인 진리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보고(寶庫)’라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써 중생들의 번뇌를 없애기 위해 교화에 힘썼음을 이야기하였고,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문학적 표현방법」(2010)과 「十二分教의 수사기법과 붓다의 교화방법」(2013)에서는 불교 경전을 불교문학의 형식으로 이해하였다. 주성욱(2012)은 「심리치료의 언어로서 은유와 그 불교적 의미」에서 불교적 정신치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까사 고타미 이야기와 마조 스님의 이야기에 나타나 있는 은유를 분석하고 ‘은유가 명상 못지않은 불교적 수행이며 심리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박찬두(1991a,b)는 불교 경전의 표현이 매우 문학적이며 교훈적이므로 오랜 세월 도덕적 종교적 감동을 주어왔으며, 대승경전은 원시경전이나 소승경전보다 표현면이나 내용면에서 문학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평가하였다.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든지 전생설화를 인용한다는지 계승을 적절히 삽입하는 등 경전은 경전 이전에 하나의 훌륭한 문학작품으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보았다.

대승경전은 문학성이 매우 뛰어나 문학작품 못지않은 가치를 지니지만, 불교 경전에 대한 문학적 접근이 어려웠던 이유는, 신성한 경전을 허구적 서사로 간주하는 데 대한 불교계의 거부감(박찬두, 1991a)과 경전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중에도 『화엄경』을 중심으로 불교 경전에 대하여 문학적으로 접근한 강기선의 연구들(2010;2014;2018;2023)은 주목할 만하다.

『화엄경』을 불교문학으로 분석한 강기선(2023)은 『화엄경』에 내재된 문학성을 밝히고, 불교와 문학의 관계를 탐구하며, 『화엄경』의 특징을 문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화엄경』에 담긴 문학적 비유, 산문체, 그리고 문학을 보는 4가지 관점(모방론, 효용론, 표현론, 존재론)¹⁾을 분석하여 『화엄경』이 종교 경전을 넘어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소영(2025)은 「돈황(敦煌) ‘금강반야바라밀경강경문(金剛般若波羅密經講經文)’²⁾에 대한 불교문학적 연구」에서, 강경의식에 사용된 「금강경강경문(金剛經講經文)」은 『금강경』의 문장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일반 대중에게 있어 쉽고 평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장 불경의 내용에 가까운 민간 불교문학 형식이라고 보았다.

동화작가 신현득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야기가 『경명왕경』³⁾에서 비롯되었고, 심청전과 같은 한국 고전 동화들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음을 설명하면서 불교 경전이 세계 동화의 원류라고 보았다(<월간금강>, 2023.08.30.). 또한, 불교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이 어휘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키며 인성 교육과 심리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⁴⁾

이러한 불교문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해석은 불교 경전이 종교적 텍스트를 넘어서 깊은 문학적 표현과 풍부한 비유, 그리고 서사적 구조를 통해 붓다의 지혜와 교훈이 어떻게 문학적 형식을 통해 더 깊이 있고 폭넓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전의 이러한 문학적 깊이는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서 일반 대중에게도 감동과 교훈을 주며, 불교문학이라는 장르가 학문적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2. 경전에 나타난 문학적 표현

1) 비유와 상징

불교의 경전은 비유와 상징을 많이 사용하여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교의 모든 경전은 그 제목에서 이미 그 핵심적인 사상이 함의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화엄경』의 경우 ‘화엄(華嚴)’이란 비유적 표현에는 깨달음에 들어가기 위한 불교의 실천행인 보살도를 의보(依報)와 정보(正報)로 장엄해야 한다는 함의가 내재되어 있다(강기선, 2023). 『법화경』 역시 경명(經名)에서 여러의 가르침을 연꽃에 비유하고 있으며 ‘연꽃’을 통해 깨달음의 과정과 불자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 에이브럼스(M.H. Abrams, 1912-2015)는 미국의 문학평론가로, 그의 책 『거울과 램프』에서 낭만주의에 대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문학 이론은 모방론(문학은 인간의 삶, 인생의 재현이라는 관점), 효용론(문학작품과 독자와의 관계에 초점), 표현론(작품과 예술가의 관계에 초점), 존재론(문학작품 자체의 존재가치를 규명하는 관점)의 네 가지 주요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영진(2007).

2) 「金剛般若波羅密經講經文」은 『金剛般若波羅密經』을 강경(講經)형식으로 쓴 강경문으로, 불경의 강경의 의식에서 사용된 돈황문헌이다. 돈황문헌들은 돈황지역에서 발굴된 두루마리 필사본으로, 「금강경강경문」은 강창문학(講唱文學) 중 강경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연소영(2025). 강창문학(講唱文學)은 중국 당나라와 송나라 때에 발전한 문학 양식의 하나로 노래와 이야기가 혼합되어 무대 예술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3) 여러 가지 인연담과 탐욕·번뇌·해탈 등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총 16개의 소경(小經)을 묶어 놓은 『불설의족경(佛說義足經)』의 제5 경면왕경(鏡面王經)에서는 붓다가 전생에 경면왕(鏡面王)이었을 때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진 다음에 말하게 했던 이야기를 해준다.

4) 월간금강(2023.08.30.), “불교 경전은 세계 동화의 원류”, <https://www.gg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40> (2025.3.17. 검색)

『법화경』에서는 크고 작은 다양한 비유를 활용하여 『법화경』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일곱 가지 비유인 ‘법화칠유(法花七喻)’를 비롯한 이 비유들은 진리를 진리답게 전하려는 하나의 방법, 곧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강기선, 2012).

『법화경』의 ‘법화칠유(法花七喻)’ 중 「비유품」의 ‘불난 집의 비유(火宅喻)’는, 이 세상을 불타고 있는 큰 집에 비유하고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재산이 많은 장자가 살았는데, 그의 큰 집은 문이 하나뿐이고 매우 낮아 불에 타고 있어 위험했다. 집 안에는 500명의 사람과 장자의 아이들이 있었다. 장자는 불이 난 집에서 아들들을 구하고자 했으나, 아이들은 불난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놀기에 정신이 팔려 장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장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레 장난감(우거, 녹거, 양거)을 유인물로 제안하여 아이들을 무사히 밖으로 나오게 했다. 밖으로 나온 아이들에게는 각자 훌륭한 크고 흰 소가 끄는 수레(대백우거)를 선물했다.”(『법화경』 「비유품」 ‘불난 집의 비유’ 요약)

이 비유는 불교의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여러 방법(삼승)을 나타내며,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는 같은 깨달음(일승)을 얻을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비유는 『법화경』의 중심 주제의 하나인 ‘일승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신해품」의 ‘가난한 아들의 비유(長者窮子喻)’, 「약초유품」의 ‘약초의 비유(藥草喻)’, 「화성유품」의 ‘화성의 비유(化城喻)’, 「오백제자수기품」의 ‘옷 속 구슬의 비유(衣珠喻)’, 「안락행품」의 ‘상투 속 구슬의 비유(髻珠喻)’, 「여래수량품」의 ‘훌륭한 의사의 비유(良醫喻)’ 등 다양한 비유적 이야기들은 붓다의 메시지를 비유와 서사적 표현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유마경』에서는 육신의 허망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몸은 물방울 같아서 잡을 수도 문지를 수도 없습니다. 또 이 몸은 물거품과 같아서 오래도록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불꽃과 같아서 애착의 탐욕으로부터 생깁니다. 이 몸은 파초와 같아서 속에 굳은 것이 있지 아니하며, 이 몸은 환상과 같아서 미혹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이 몸은 그림자와 같아서 업연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몸은 메아리와 같아서 온갖 인연을 따라 생기며, 이 몸은 뜬구름과 같아서 잠깐 사이에 변하고 소멸합니다. 또 이 몸은 번개와 같아서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유마경』 「방편품」)

인용한 경문에서는 ‘몸’에 대하여 물방울, 물거품, 불꽃 등의 10가지 문학적인 비유로써 추상적인 ‘무상함’을 생생하고 실제적인 의미로와 닿게 해준다. 이러한 경전의 비유적 표현은 문학적 심상(心象)으로서 작용한다. 문학적 심상이란 이미지 또는 표상을 말하는 것으로 감각에 의하여 지각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나는 상을 말한다. 『유마경』의 이 경문을 읽을 때 독자는 자신의 몸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며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허망함’, ‘집착할 필요 없음’ 등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평소 집착하고 있던 대상에 대한 마음을 소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처럼 경전에서 비유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붓다의 메시지를 좀더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중들이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함으로써 생생한 ‘느낌’으로 그 메시지를 파악하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유의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비유는 감상자와 작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공간에서 형성된다. 감상자, 작가, 텍스트의 세 요소가 만나서 형성되는 삼자 대화(triadic dialogue)(Jeffers, 2003:13)의 공간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가 비유적으로 구성되어 가는 것이다. 작가는 대상을 재현(representation), 혹은 변형(transfiguration)하여 텍스트를 생산한다(한귀은, 2006).’

직·간접적 의사소통의 과정이 문학작품과 같은 텍스트를 만들어내며 ‘텍스트’ 속의 비유는 보통 ‘이야기’의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설화’의 장르로 이해할 수 있으며 우화 역시 설화의 한 형태이다. 이렇게 비유가 형성되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감상자’를 ‘중생’, ‘작가’를 붓다, ‘텍스트’를 ‘불교 경전’으로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감상자와 작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공간에서 형성’되는 내용을 ‘중생과 붓다가 만나서 이루어진 소통 과정에서 생산된 붓다의 설법’이 ‘텍스트’인 『법화경』, 『유마경』과 같은 경전을 생산해 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김선화, 2021).

불교 경전은 ‘거대한 인본주의적인 문학작품’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강기선, 2017), 그 문학적 특성은 다양한 경전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화엄경』 「십지품」에서는 보살 수행의 열 단계인 십지(十地)를 열 가지 모양의 큰 바다에 비유함으로써 각 지위의 성격과 의미를 상징적 이미지로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김선화, 2021). 또한 강기선(2021)은 『화엄경』 「여래현상품」의 문학적 표현에 주목하면서, 유려한 비유와 수사적 장치를 통해 여래의 위덕과 공덕을 찬탄하고, 그로써 붓다의 세계를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불교 경전의 문학적 특징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교 경전에서 만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은 상징과 비유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표현되며, 이는 경전의 문학적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독자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전을 읽고 그 의미를 깊이 받아들이고 삶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는 과정은 문학 작품의 감동을 내면화하는 경험과 유사하다. 다시 말하면, 경전이 가진 문학적성이 독자의 내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경전이 ‘의도하는’ 실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서사적 구조와 이야기

문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다른 하나는 경전의 내용이 이야기를 통한 서사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서사(敍事)는 문학텍스트에서 서술되는 사건, 이야기 또는 줄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세상에서 일어나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이야기를 인간의 말과 글, 즉 언어를 통해 스토리 및 줄거리의 형태로 표현, 서술하는 것을 의미한다(장순란, 2017). 특히 문학적 서사는 인물이 특정한 상황(배경) 속에서 사건을 겪어나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서술자의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현하는 문학적 양식으로, 인물, 사건, 공간(배경)과 서술자의 존재를 핵심 요소로 하여 구성된다(장순란, 2017). 이러한 서사는 단순한 이야기의 나열이 아니라,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사건들이 인과적으로 배열된 ‘문학적 구성’을 갖춘 이야기로 이해된다. 따라서 서사는 사건들을 인과적(因果的)으로 연결하여 의미 있는 이야기로 구성함으로써, 독자에게 주제에 대한 통찰과 정서적 공감을 전달하는 구조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서사물은 신화·전설·우화·민담·소설·서사시·역사·비극·추리극·희극·무언극·회화·영화·지역뉴스, 그리고 일상 대화 등이 포함되므로 사건과 상황의 시간 연속으로 이루어진 불교 경전은 서사성이 뛰어나다고 하겠다(박찬두, 1991b). 불교경전은 문학적 서사의 본질과 구성요소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불교의 사상과 신념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는 ‘문학적 구성을 갖춘 이야기’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서사에는 일정한 구조와 정향성(正向性)이 있어서 인간의 삶에 대해 인과적이고 맥락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서사는 이야기(Story)의 구조적인 요소를 포함하며, 플롯, 등장인물, 배경과 같은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이야기가 구성되는지를 보여준다.

『법화경』을 비롯한 많은 경전들이 일관된 서사 구조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한다. 특히 『법화경』은 여러 품(品)이 독립적인 이야기를 이루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일승(一乘) 사상이라는 하나의 중심 주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법화경』의 서사 구조는 『법화경』의 가르침에 대한 점진적 전개와 독자들의 이해를 촉진하는 문학적 장치로 작용함으로써 독자의 공감과 이해를 돕는다.

앞에서 언급한 『법화경』의 ‘불난 집의 비유’를 비롯한 여러 비유들은 서사적 표현을 통해 불교의 핵심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한다. 특히, ‘불난 집의 비유’는 극적인 사건 전개를 통해 중생이 처한 현실적 고통과 부처의 구원에 대한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다음은 ‘불난 집의 비유’의 서사구조를 일반적인 이야기의 구조, 즉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과정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불교적 메시지와 상징성을 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불난 집의 비유’의 서사구조

단계	내용	요지	불교적 상징
발단	장자가 거대한 집에 많은 사람과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음. 그 집은 넓고 허물어져 있음.	외형적 풍요와 내면의 위태로움	중생이 머무는 삼계(三界), 불안정한 삶의 기반
전개	집에 불이 나기 시작함. 장자는 밖으로 나왔으나 아이들은 불 속에서 놀고 있음.	위기의 인식과 자식들에 대한 염려	삼계의 고통, 중생의 무지
위기	장자가 직접 아이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나오라고 권유하나 아이들은 듣지 않음.	권고에도 반응하지 않는 무지한 중생	불법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존재들
절정	장자가 ‘방편’을 써서 장난감을 준다고 아이들을 유혹함 → 아이들은 기뻐하며 집을 나옴	중생의 욕망과 근기, 곧 능력에 따라 방편을 베풀	삼승의 방편(方便)을 베풀어 해탈을 이룸, 구원의 약속
결말	아이들은 밖으로 나와 작은 수레보다 더 큰 수레(대승)를 받음.	실상은 오직 하나의 불승(佛乘)만 존재함	일불승(一佛乘)의 가르침, 평등한 구제

<표 1>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불난 집의 비유’의 서사는 단순한 이야기 형식이 아니라, 중생 구제의 방편과 부처의 평등한 자비를 핵심 주제로 하는 상징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사는 문학적 감동과 함께 명상적 통찰과 교리적 가르침을 동시에 전달한다는 점에서 『법화경』의 문학적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불이 난 집에 아이들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 “여러 아이들이 이 불타는 집에서 장난하고 노느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불이 곧 몸에 닿아서 그 고통을 한없이 받으려만, 걱정하는 마음도 없고 나오려는 생각도 못 하는구나”⁵⁾와 같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으며, 아버지(붓다)는 아이들(중생)을 구하기 위해 아이들의 취향에 맞는 여러 수레들을 제시하며 아이들을 밖으로 유인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하나의 수레(일승)를 주어 모두가 동일한 깨달음의 길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비유는 사건의 인과적 배열과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불교의 일승(一乘) 사상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신해품」의 ‘가난한 아들의 비유’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의 전개를 정리할 수 있다.

아들이 어릴 적 아버지 집을 떠나 수십 년간 가난하게 떠돌며 생계를 이어감 → 우연히 아버지의 저택 앞에 이르러 아버지를 보지만, 위엄에 눌려 도망치려 함(처음부터 근기에 맞지 않는 일불승을 베풀었을 때의 문제점) →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겁내는 것을 보고 방편으로 하인을 시켜 천한 일(근기에 맞는 일)부터 맡김 → 아버지는 점차 아들에게 신뢰를 주며 “자식처럼 여긴다”고 말하고, 아들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함(근기를 성숙시킴) → 아버지는 임종을 앞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아이가 나의 친아들”이라 선언하고(진실을 밝힘: 원래 일불승 불자인데, 근기에 맞추어 그동안 3승을 베풀 뜻을 밝힘), 아들은 큰 기쁨과 자각을 얻게 됨.

이 이야기는 가난한 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아버지가 큰 부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떠돌다가 점차 아버지와 재회하며, 결국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과정을 통해 부처와 중생 사이의 관계, 그리고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 서사는 인물의 심리적 변화와 내적 성장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독자가 『법화경』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돕는다.

이들 비유의 서사적 구조는 종교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머물지 않고, 이야기의 풍부한 감정적 표현과 극적인 사건 전개를 통해 독자에게 깊은 정서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법화경』이 종교적 텍스트를 넘어 하나의 문학적 작품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경전의 서사적 구조는 종교적 교훈을 전달하는 역할뿐 아니라, 이야기 속의 인물의 감정 변화와 사건 전개 of 흐름을 통해 독자가 경전의 교훈을 내면화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학적 효과를 지닌다. 이는 『법화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들이 종교적 텍스트 이상의 풍부한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인 문학작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시적 표현과 수사적 기법

불교의 경전에서는 운율과 리듬을 활용한 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불법(佛法)의 메시지를 보다 명확하고 강렬하게 전달한다. 경전의 운문 형식은 문학적 아름다움으로 독자의 집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초기 경전 중 가장 오래된 『숫타니파타』는 붓다의 설법을 운문 형식으로 엮은 경전 모음집이다. 『숫타니파타』 텍스트의 각 장을 구성하는 후렴구와 다양한 상징은 종교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문화적 특성뿐 아니라 문학적성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이승재, 2024). 『숫타니파타』의 경문들은 결구의 반복이 두드러지는데, 익히 잘 알려진 「무소의 뿔의 경」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구절을 41개의 계송에서 모두 적용하여 반복하고 있다.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쓰지 말고,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말며,
자녀조차 원하지 말라. 하물며 동료들이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교제가 있으면 애착이 생기고, 애착을 따라 이러한 괴로움이 생겨나니,
애착에서 생겨나는 위험을 살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무소의 뿔의 경」, 전재성, 2015:106)

국내 유명 작가의 소설 제목이기도 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집착을 버리고 깨달음을 위해 묵묵히 수행하라’는 의미를 강조한다.⁶⁾ 또한 ‘무소의 뿔’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그 의미를 더욱 선명하고 인상 깊게 전달하며, 세상의 번뇌와 유혹 속에

5) 『妙法蓮華經』 卷2 「譬喻品」(T09, 12b), “我雖能於此所燒之門安隱得出, 而諸子等, 於火宅內樂著嬉戲, 不覺不知、不驚不怖, 火來逼身, 苦痛切己, 心不厭患, 無求出意。”

6) 작가 공지영(1963~)은 한국의 대표적 여성 소설가로, 1993년 장편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발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소

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무소의 뿔의 경」 외에도 『숫타니파타』에는 강조하는 메시지를 반복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반복된 경구들은 하나의 격언이나 명언처럼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쉽게 기억될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천적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경구의 반복은 독자의 주의를 특정 메시지에 집중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하여,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계송(偈頌)은 불법의 교설을 ‘운문’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강기선(2021)은 『화엄경』의 「여래현상품」에 나타난 문학적 표현을 연구한 논문에서 계송에 대하여 ‘유려한 문학적 계송[詩]’이라고 표현하면서 계송이 지닌 문학성을 강조하였다.

계송(偈頌)은 불교 경전에서 교리를 요약하고 되새기도록 돕는 운문 형식의 문학적 장치로, 시적인 반복과 리듬을 통해 독자의 몰입을 유도하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일정한 글자 수와 구조가 반복되는 운율은 독서자나 수행자가 경전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만들고,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계송은 함축적인 표현으로 교리의 핵심을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다음은 『법화경』 「비유품」에 실린 ‘불난 집의 비유’ 계송의 일부로, 붓다가 앞서 설한 이야기를 요약하고 강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언급한 형식이다.

“붓다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어떤 장자/크나큰 집 지냈으나/그 집 오래되어/퇴락하고 낡았으며
당사(堂舍) 아주 위태롭고/기둥뿌리 썩어 들고/대들보는 기울어져/축대마저 무너지니
담과 벽이 헐리고/발랐던 흙 떨어지고/지붕도 썩어 내리며/서까래도 부서지고
막혀 버린 골목에는/오물만이 가득하고/그 가운데 5백 식구/우글우글 살더라.”⁷⁾

붓다의 비유를 시적으로 형상화한 이 계송은 상징적 이미지를 생생하게 부각시켜, 독자로 하여금 ‘불타는 현실 세계’라는 주제를 감각적이고 정서적으로 체험하게 한다. 낡고 붕괴된 저택에 갇힌 중생들의 모습은 현실의 고통과 번뇌, 무지 속에 갇힌 인간 존재를 은유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논리적 설명보다 강한 인상을 주며, 독자 또는 수행자가 스스로의 삶을 반추하도록 한다. 따라서 계송의 운문적 구조는 경전의 문학성을 드러내는 핵심 수단이자, 불교 교리를 정서적으로 체화하게 하는 문학적·교육적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법화경』 「약초유품」 계송의 일부이다.

“가섭은 바로 알라./비유컨대 큰 구름이/세간 위에 일어나/온갖 것을 뒤덮듯이
지혜 구름 비를 품고/번갯불이 번쩍이며/우레소리 진동하니/중생들 기뻐하고,
햇빛은 가려지고/지상은 서늘하며/몽게구름 자욱하여/손끝에 닿을 듯이
고루 넓게 내리는 비/사방의 어디에나/무량하게 퍼부어서/땅마다 흠족할새”⁸⁾

이 계송은 붓다의 자비를 문학적 비유로 형상화하고 있다. 큰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온 세상에 고르게 비를 내리듯, 붓다는 중생의 근기와 차별을 가리지 않고 지혜의 비를 내린다. 그 비는 번갯불처럼 마음을 깨우고, 우레소리처럼 깊은 내면을 울려, 햇빛에 지친 세상을 서늘하게 적시며 생명을 소생시킨다. 자욱한 몽게구름 아래 고루 퍼지는 이 비처럼, 붓다의 자비는 충만하고 무량하여 누구든지 그 은혜를 피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속에서 깨어날 수 있다.

이러한 계송은 설법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시적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

설은 붓다의 『숫타니파타』 계송에서 유래한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자아 성찰, 여성의 독립적 삶을 주제로 삼았다.

- 7) 『妙法蓮華經』 卷2, 「譬喻品」(T09, 13c), “佛欲重宣此義, 而說偈言: 譬如長者, 有一大宅, 其宅久故, 而復頽弊. 堂舍高危, 柱根摧朽, 梁棟傾斜, 基陛隕毀. 牆壁圯圯, 泥塗褻落, 覆苫亂墜, 椽桷差脫. 周障屈曲, 雜穢充遍, 有五百人, 止住其中.”
- 8) 『妙法蓮華經』 卷3 「藥草喻品」(T09, 19c), “慧雲含潤, 電光晃曜, 雷聲遠震, 令眾悅豫. 日光掩蔽, 地上清涼, 飄颻垂布, 如可承攬. 其雨普等, 四方俱下, 流澍無量, 率土充洽.”

육이 계송의 짧고 압축된 형태는 강렬한 시적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경전의 교훈이 독자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불교 경전의 계송은 운율로써 리듬감을 불어넣어 생생한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지화된 시적 언어로 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과 불교의 동일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강기선, 2023). 특히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반복이라는 점에서, 계송의 반복적 표현 방식은 불교 경전의 문학성과 긴밀히 연결된다. 이러한 운문 형식과 반복적 리듬은 단순한 의미 전달을 넘어 독자의 정서적 몰입과 의미의 내면화를 유도하며, 시적 운율과 음악적 감흥을 자아낸다.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은 불교 경전을 철학적·종교적 텍스트를 넘어 문학적 감수성을 지닌 작품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경전의 문학적 수용과 심리적 치유기제

문학은 문학작품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고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시나 우화 등에서 얻은 ‘공감’과 ‘감동’이 내면화되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 감동은 어떤 것에 의해서 강요되는 것이 아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감동의 순간은 잊히지 않고 각인되므로 그 순간을 기억할 때마다 삶은 정화되고 재생된다고 할 수 있다(정효구, 2015).

불교 경전에서 사용되는 비유, 은유, 상징과 같은 문학적 표현은 독자의 정서를 자극하고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다. 특히 세친 논사가 『법화경론』에서 증상만심(增上慢心)의 치유 기제로 『법화경』의 비유들을 제시⁹⁾한 것은, 이러한 표현 속에 이미 치유적 의미와 기능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법화칠유(法華七喻)와 같은 상징적 이야기를 읽으면서 독자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지어 이해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삶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찰하게 된다.

법화칠유는 붓다가 중생을 교화하고 진리로 이끄는 방편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서사들로, 종교적 교훈을 넘어 독자에게 강한 정서적 공감과 자기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문학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이 비유들은 각각의 상징과 비유를 통해 독자가 자신의 삶과 내면을 투영하게 하며,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적 욕구와 실존적 고민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심리치유적 효과 또한 함께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중생이 불타는 현실, 즉 번뇌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불난 집의 비유[火宅喻]’는 독자로 하여금 현실에서 삶의 방향성을 잃고 혼란에 빠진 자신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삶의 고통 속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고 싶어하는 내면의 바람을 확신하게 된다. 중생이 살아가는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 세계를 상징하는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다양한 장난감을 방편으로 삼는 아버지의 모습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누군가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중생의 마음과 연결된다. 붓다의 자비가 이러한 고통의 현실에 어떻게 손을 내미는가를 보여주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위로를 얻게 된다.

‘가난한 아들의 비유[窮子喻]’는 부유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찮게 살아가던 아들이, 아버지의 자비를 통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야기이다. 이는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심리적 상태와 유사하다. 독자들은 이 비유에서 자신이 부유한 존재임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찮은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아들’의 모습을 통해, 자기 비하와 자기 부정의 상태를 성찰하게 된다. 또한 ‘나는 본래 어떤 존재인가’를 되묻게 되며, 자기 존엄의 회복이라는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신뢰를 되찾게 된다.

붓다의 자비가 차별 없이 모든 중생에게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약초의 비유[藥草喻]’는 각기 다른 존재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진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약초의 비유’는 비가 모든 식물에 내리지만, 각각의 식물이 자신에게 맞게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 붓다의 가르침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르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는 저마다 다른 능력과 삶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 없이 법을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다는 평등의 메시지로 깊은 위안을 준다. 이는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심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 자각을 가능하게 한다.

‘화성의 비유[化城喻]’는 길을 가다 지친 중생을 위해 붓다가 임시 목적지인 ‘화성’을 만들어 쉬게 한 후, 다시 참된 목적지로 이끈다는 이야기이다. 수행과 인생의 길에서 중도에 지쳐 멈춘 존재를 향해 붓다가 임시 목적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지금까지의 좌절에 대한 경향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여정이었음을 이해하게 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자신이 포기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다. 이는 현실에서 목표를 잃거나 지쳤을 때 작은 성취나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며, 독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 삶의 좌절이 끝이 아님을 깨닫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옷 속 보배구슬의 비유[衣珠喻]’는 중생이 자신 안에 이미 귀한 보배를 지니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기 안에 이미 소중한 보물이 있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중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옷 속의 보배구슬의 비유’는 자신이 지닌 잠재

9) 『妙法蓮華經憂波提舍』 卷2. 「譬喻品」 (T26, 8a26), “說七種喻, 對治七種增上慢心”.

성과 가능성을 있고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한다. 또한 진정한 가치는 외부가 아닌 자신 안에 이미 있다는 이 메시지는 「안락행품」에 나오는 ‘상투 속 구슬의 비유’에서도 반복된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이 본래부터 지닌 존엄성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며, ‘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불성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자각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기 수용과 자존감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이 비유는 깊은 심리적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

‘상투 속 구슬의 비유[髻珠喻]’는 전쟁에 나아가 공을 세운 장수에게 왕이 땅이나 보물 등을 상으로 하사할 수 있으나 왕을 상징하는 상투 속에 있는 구슬은 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상투 속에 있는 구슬은 여래의 으뜸 가는 법(法)을 담고 있는 『법화경』을 상징하지만, 인간 내면에 잠재된 ‘궁극적 자아(Self)’ 또는 자기실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점진적 성장과 성찰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심리적 통합과 성숙의 상징이며,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실존적 전환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왕이 상투 속의 구슬을 내어준다’는 것은 붓다가 중생에게 최상의 가르침을 드러내듯, 인간이 자기 안의 진정한 가치를 자각하고 수용하는 최고 차원의 내면적 깨달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비유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에 이미 소중한 가치가 잠재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며, 자신이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본래부터 귀한 존재라는 심리적 지지를 받게 한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의사의 비유[良醫喻]’는 병든 자식을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는 아버지(의사)의 이야기이다. 병든 자식이 약을 먹지 않아 일부러 죽은 척함으로써 자식이 정신을 차리고 약을 먹게 만든다는 이 ‘훌륭한 의사의 비유’는 병든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돌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믿고 지켜주는 존재에 대한 심리적 욕구를 확인하게 한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과 실망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자기 연민과 자기 수용의 정서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비를 상징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점에 위안을 느끼게 되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끝까지 돌보아 주는 존재, 예를 들면, 부모나 가족 등에 대한 근원적 신뢰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법화경』의 일곱 가지 비유는 각각의 이야기 안에 상징성과 문학성을 담고 있으며, 불교의 지혜를 생생하게 전달할 뿐 아니라,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비추어보고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법화칠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전에서 붓다는 장자, 여행안내자, 친한 친구, 전문성왕 등으로 그려져 있으며, 중생은 장자의 자식, 친구, 여행객, 병사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붓다는 상담자일 수도 있고, 멘토일 수도 있으며, 선생님일 수도, 지도자일 수도 있다. 비유 속의 붓다는 중생, 곧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비와 사랑, 그리고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이것은 붓다가, 멘토가, 선생님이 모든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내면과 진정으로 소통하게 될 때 치유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각 비유는 실존적 고뇌, 자기 회복, 수용과 자비,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을 상징적으로 그려내며, 독자들이 불법(佛法)의 의미를 정서적으로 체득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일 것이다.

III. 경전 읽기의 명상적 성격

1. 불교의 명상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분산된 의식을 집중시키고, 내적 통찰을 얻기 위한 불교의 수행법이다. 우리가 ‘마음챙김명상’이라고 이름하는 명상은 정신적 자유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불교의 수행법인 집중명상(Samatha)과 통찰명상(Vipassana)에서 비롯된 것으로, 심신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명상법이다(신진옥, 2024). 특히 명상 수행의 심리적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현대적 심리치유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선명상은 2023년 한국 불교계에서는 참선 수행에 명상을 결합한 ‘선명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한국불교의 수행법에 근간을 둔 다양한 명상법이 개발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여태동, 2024).

명상은 이미 심리적 안정과 자기 성찰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불교의 수행법이 심리치유와 스트레스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송영숙, 2016; 안양규, 2019; 문진진, 2021)은 이러한 접근이 개인의 내적 평화와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심리적 안정과 자기 성찰의 바탕이 되는 불교의 수행법은 경전의 교훈, 곧 붓다의 지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불교의 경전은 종교적 텍스트 이상으로 그 속에 담긴 문학적 요소와 깊이 있는 내용이 독자의 마음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명상을 통한 실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불교 경전에서 얻은 통찰력은 독송을 통한 명상의 형태로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삶에서, 혹은 상담의 과정에서 불교 경전을 통해 얻게 되는 공감과 감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불교 경전은 상처받고 병든 마음

을 치유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명상은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수적이며, 경전은 이러한 명상의 실천을 위한 지침과 영감을 제공한다. 붓다의 가르침을 문자화한 것이 바로 불교의 경전이므로 경전을 제외한 수행은 기초를 다지지 않은 채 수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전 읽기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김광민(2012)은 올바른 수행은 경전 공부와 참선이 제대로 갖추어진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둘은 ‘순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참선의 결과가 경전 공부에 영향을 미치고, 경전 공부는 다시 참선 수행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상수행과 경전 읽기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2. 경전 읽기와 명상 수행의 관계

불교에서 경전 읽기는 종교적 의무나 교리 학습의 수단이 아니라 수행자의 내면을 다듬고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의 명상적 실천으로 이해된다. 『법화경』을 비롯한 대승경전에서는 경전의 수지독송(受持讀誦), 해설, 서사 등의 실천을 거듭 강조한다. 이를 통해 수행자가 경전을 읽는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의식과 삶을 변화시키는 깊은 수행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2020)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는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계율,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수행법들은 각기 독립된 방식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수행의 과정에서는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며, 수행자의 실천에 따라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 가운데 ‘간경수행(看經修行)’은 경전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붓다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마음에 깊이 새겨 지혜를 닦는 수행법이다. 간경은 단순히 문자적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전 읽기의 행위를 통해 내면을 관조하고 수행적 자각을 심화시키는 실천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불교 경전 읽기는 마음을 집중시키고 감정을 자각하며 존재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명상 수행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경전 읽기의 명상적 요소는 먼저, 마음챙김(mindfulness)과의 관련성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전을 읽는 동안 수행자는 현재의 문장, 의미, 리듬, 상징에 집중하며, 이것은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비판 없이 수용하는 마음챙김 훈련과 유사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따른다. 마음챙김은 공감 능력과 자기 성찰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며, 이는 경전 읽기에서 나타나는 내면의 몰입과도 연결된다(김정모, 2011).

다음으로, 경전 읽기는 통찰명상(vipassanā)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통찰명상은 현상에 대한 지혜로운 관찰을 통해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의 진리를 직접 체득하려는 수행으로, 경전을 반복적으로 읽고 숙고하는 과정 역시 이러한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내면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수행은 불교 심성론에서 말하는 문사수(聞思修), 곧 듣고[聞], 사유하고[思], 수행하는[修] 삼학적 단계를 충실히 반영한다. 이 수행 과정을 통해 생기는 지혜는 ‘삼혜(三慧)’, 즉 문혜(聞慧), 사혜(思慧), 수혜(修慧)로 구분되며, 각각 가르침을 듣고 생기는 지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여 얻는 지혜, 그리고 수행을 통해 직접 체득하게 되는 지혜를 의미한다. 이처럼 문사수는 단순한 몰입 수행 이전에, 바른 이해와 성찰을 기반으로 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불교 수행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다(양승규, 2010).

따라서 문사수의 구조는 통찰명상의 수행 체계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찰명상은 단순히 집중력을 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존재의 본질을 관찰하고 진리에 이르는 지혜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며, 실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통찰명상에서 중시되는 무상, 고, 무아의 진리는 문사수를 통해 점진적으로 체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경전 읽기는 명상 수행의 이론적 기초이자 실천의 길로 작용할 수 있다.

김나래(2025)는 염불선과 비움에 관한 연구에서, 불교의 염불선이 기독교의 예수기도, 이슬람교의 디크르, 힌두교의 만트라와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종교적 찬탕’(Repetitive Religious Chanting)을 통해 변형된 의식 상태를 경험하고 신성과의 합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서양 종교 수행 전반에 걸쳐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보았으며, 경전 독송은 단순한 경문 낭독을 넘어 비움[空]의 실천, 감각의 통합, 의식의 전환을 통해 불성과의 공명을 실현하는 명상 수행이자, 소리와 침묵 사이의 비움과 자아의 해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깨달음의 길로 이해하였다. 김희종(2021)의 연구는 『금강경』 독송이 불교 신행의 실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치유·명상적 집중·실존적 전환을 이끄는 수행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경전 독송이 마음챙김 기반 명상치유법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특히 종교성과 수행성이 통합된 불교적 명상 수행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경전 독송이 단순한 종교적 낭송을 넘어 명상의 본질적 요소들을 포함한 수행법이라는 점이다. 경전 독송은 반복적인 음성과 리듬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며, 수행자가 독송하는 경전의 내용과 소리에 온전히 몰입하게 만든다. 이는 ‘집중명상(samatha)’과 유사하며, 산만한 마음을 하나의 대상—경전의 구절이나 의미, 소리 등—에 모으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전 독송은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하고, 언어·리듬·호흡이 하나가 되는 집중의 상태로 이끄는 수행으로서,

주의집중과 몰입을 유도하는 집중명상적 요소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모(2011)의 연구는 마음챙김 훈련이 정서적 자각을 높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심리치료적 기제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챙김의 효과는 간경 수행과 같은 불교 경전 읽기, 특히 간경명상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불교 경전 읽기는 독자가 경전 속 서사와 상징, 비유의 세계에 몰입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환기하고, 존재의 고통과 자비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내는 체험적 읽기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마음챙김의 핵심 요소인 현재에 대한 주의, 감정의 수용, 판단의 유보가 실천될 때, 경전 읽기의 행위는 내면 성찰과 더불어 타자에 대한 깊은 공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결국, 간경 수행은 불교 수행의 전통적 명상에서 오는 마음챙김과 공감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며, 수행자의 정서적, 인지적 성숙을 이끄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법화경』을 비롯한 대승경전은 중생의 고통, 부처의 자비, 존재의 연기성을 상징적이고 서사적인 방식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경전을 마음챙김의 태도로 읽을 때, 독자는 경문의 내용에 정서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직시하고 이에 공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는 마음챙김이 자기-타인 간 경계를 유연하게 만들고, 감정의 자동적 반응을 조절하여 보다 성숙하고 의식적인 공감 반응을 이끄는 과정과 유사한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김정모(2011)의 연구와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연속적으로 부르는 기도와 같은 집중은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청명하면서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고 있는 자신의 본성인 본래면목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챙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천윤성, 김은영(2022)의 연구, 그리고 금강경 독송 기도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배우고 실천하는 종교적 의식으로써만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개인적인 성찰과 돌봄, 그리고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손강숙(2025)의 연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전 자체를 수행의 대상이자 수행의 방식으로 삼고 있는 『법화경』은 수지(受持), 독(讀), 송(誦), 해설(解說), 서사(書寫), 곧 오종법사행(五種法師行)의 실천을 통해 공덕이 성취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육근(六根)이 청정해지면 자연스럽게 지관(止觀)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신(身)·구(口)·의(意)의 삼업(三業) 또한 정화되므로 『법화경』은 경전 자체의 독송과 수지, 해설의 행위 속에서 명상이 이루어지고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불교 경전 읽기는 그 자체로 마음챙김 훈련과 공감 훈련이 통합된 하나의 명상적 수행으로 볼 수 있다. 독자는 경전의 언어와 비유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화하며, 타인의 고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적 공감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경전 읽기는 종교적 수행을 떠나 공감 능력을 함양하는 정서적·인지적 훈련이자, 마음챙김의 실천적 확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전 읽기는 정서적 자각과 치유적 기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경전에는 풍부한 서사 구조와 상징, 비유적 표현이 담겨 있어, 독자는 이야기 속 인물이나 상황에 자신의 심리 상태를 투사하며 감정을 환기시키고 자비와 공감의 정서를 활성화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경전 읽기가 문학치료와 유사한 심리치유기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문학이 지닌 두 가지 효용, 즉 쾌락과 교훈은 인간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치료적 기능을 발휘하며(김상진, 2007), 문학작품을 읽는 과정과 심리치료는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이라는 공통된 과정을 통해 정서적 정화와 자기성찰을 가능하게 한다(신진범 외 공역, 2023). 이러한 점에서 불교 경전 읽기는 문학과 유사한 기제를 통해 독자의 내면에 심리적 변화를 유도하는 수행법이자 치유의 방식이 될 수 있다.

경전은 종교적 텍스트를 넘어, 상징과 비유, 교리와 이야기 구조를 통해 실존적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이며, 독자는 경전을 읽고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아’, ‘연기’, ‘자비’, ‘지혜’ 등 불교의 근본 가르침에 대해 지적·정서적 성찰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성찰은 통찰명상(vipassanā)으로 이어져 독자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촉진하는 수행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험은 문학치료와 마찬가지로 명상적 독서를 통한 정서 조절과 내적 치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전 읽기’는 그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독자의 수행적 태도를 통해 명상 수행의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전 읽기는 마음을 집중하고 감정을 수용함으로써 독자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 동시에 통찰을 이끌어내는 통합적 명상 행위로 볼 수 있다.

3. 문학적 감성과 명상의 상호작용

경전 읽기는 붓다의 가르침이 담긴 경(經)의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수행이므로,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안유숙, 2020). 특히 경전 읽기는 텍스트를 통해 독자의 감각과 정서, 사고를 자극하고, 이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내면에 반응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학적 감성과 만나는 지점을 형성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전 독송은 수행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사찰의 의식이나 기도의 한 방편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경전의 본래 목적이 붓다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독자와 수행이 만나는 경전 읽기의 감성적·명상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김미정(2015)은 독서치료 기법을 활용한 경전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들이 불교의 가르침에 보다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며, 경전 읽기를 통해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명상을 기반으로 한 독서토론 활동은 마음을 여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명상’이나 ‘독서치유(독서토론)’를 개별적으로 운영했을 때보다 참여자들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프로그램에 임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한다(김미정, 2015).

손혜숙(2021)은 「언어와 자각: 명상적 접근을 통한 영미시 읽기」 연구에서 문학 교육에서 ‘자각’(awareness) 수련은 학습자의 자발성, 창의성과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일깨우면서 학습 능력을 배가시켜 주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감각, 느낌, 정서, 사유를 알아차리도록 도와 주며, 텍스트 읽기와 해석 훈련을 더욱 효과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체험으로 변화시켜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각 능력의 함양은 학습 능력을 계발하는 근본적 방안이자, 특히 문학작품을 읽고 향유하는 문해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독자는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주체적이고 고유한 감각, 느낌, 사고를 바탕으로 텍스트와 마주하게 된다. 이 해석 과정은 독자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자각 속에서 텍스트를 수용하고, 나아가 자아를 상대화하며 사고의 지평을 확장해 가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손혜숙, 2021). 손혜숙·한신일(2023)은 영미시 교육을 중심으로 한 명상과학과 문학치료의 통합적 접근 연구에서 뇌의 기본 연결망(default network)을 서사적 초점(Narrative Focus)에서 경험적 초점(Experiential Focus)으로 변화시키는 명상의 특성(Holzel et al., 548)이 즉각적으로 체험을 환기하는 짧고 압축된 시의 언어와 맞기에 문학의 언어, 특히 시의 언어는 명상의 깊은 자기 성찰을 담아내는 데 있어 최적화된 언어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시의 언어가 명상의 깊은 자기 성찰을 담아내는 데 있어 최적화된 언어라 한다면, 종교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불교 경전의 텍스트들은 오히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자아성찰과 더불어 불교의 가치가 주는 의미들이 개인의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전통적 수행에서 경전의 독송은 단순히 텍스트를 읽거나 암송하는 행위를 넘어서, 독자의 마음을 명상의 상태로 이끄는 수행적 의미를 지닌다. 소리를 내어 경전을 읽거나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행위는 곧 호흡과 의식을 한곳에 모아 내면의 평화를 촉진하는 명상적 수행법이다. 이처럼 깊은 몰입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경전 읽기는 불교 수행법 중에서도 명상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여태동(2024)은 불교의 수행법에 명상이라는 용어를 붙여 ‘계율 명상’, ‘간경 명상’, ‘염불 명상’, ‘참선 명상’, ‘보살행 실천 명상’ 등을 선명상이라 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중 간경 명상은 좌뇌의 활성화 효과가 있음도 입증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불교의 수행법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고는 하지만 경전을 소리 내어 읽거나 마음속으로 속독하는 간경 명상은 불교가 궁극으로 추구하고 있는 깨달음의 길, 즉 열반의 길로 안내하는 명상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붓다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경전의 교훈과 수행법을 따라서 실천하였을 때 궁극적 행복을 얻을 수 있기에 경전은 그 자체로서 치유서라고 할 수 있다(김미정, 2015). 경전을 읽거나 쓰는 행위에 집중하고 몰입한다는 것에서 명상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경전을 읽고 사경을 하는 등의 수행방법은 문학적 감성과 명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신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명상법으로 볼 수 있다.

IV. 경전 읽기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경전 읽기는 전통적으로 해탈을 지향하는 불교 수행의 한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 의미와 기능을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 특히 정신적 불안, 정체성 혼란, 관계의 단절 등 내면적 고통이 심화되는 현대인에게 경전 읽기는 정서 조절과 자기 성찰, 존재론적 통찰을 가능케 하는 수행적 독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전 속의 상징과 비유, 서사 구조는 독자로 하여금 내면의 감정을 환기하고 삶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며, 이러한 독서 경험은 명상적 몰입과 감성적 수용의 과정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치유의 자원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경전 읽기는 종교적 수행에서 일상에서의 수행으로 적용하여 교육, 상담, 자기계발 등의 영역에서 두루 활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전 읽기가 불자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감정을 자각하며,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끄는 내면 훈련이라는 점에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성찰을 돕는 일상의 수행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마음챙김명상과 경전 읽기의 통합은 현재 순간에 머물며 자아의 내면을 관찰하고 감정을 조율하는 명상수행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서교육, 자기성찰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및 번아웃 예방 등의 다양한 교육 및 상담 장면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성인 학습자를 위한 치유 중심의 독서 모임, 사경 수행 등의 실천과 자기계발 활동 등은 자존감 회복, 삶의 방향 재정립, 영성 증진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경전 읽기는 종교적 경계를 넘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일상 속에서 정서적, 인지적, 영적 성장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행 방식으로 주목된다고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불교 경전, 특히 『법화경』을 중심으로 경전이 지닌 문학적 특성과 명상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경전 읽기가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수행적 독서이자 치유적 실천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경전은 이야기 구조, 상징, 시적 표현 등을 통해 독자의 정서에 호소하고 명상적 몰입을 유도하는 문학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경전 읽기가 단순한 종교적 학습을 넘어서, 정서의 환기와 자아 성찰, 그리고 존재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수행적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경전 읽기는 마음챙김을 통한 주의, 감정의 수용, 판단의 중지 등과 같은 명상적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는 내면의 감정과 접촉하고 자아를 성찰하며, 자비와 지혜의 체험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전 읽기의 명상적 특성은 정서 안정, 자기 조절, 자아 성찰 등의 심리적 효과와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경전 읽기가 현대 사회에서 교육, 상담, 자기계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 기반의 독서활동으로 응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성인을 위한 정서교육, 마음챙김 기반의 치유 프로그램, 영성 중심의 평생 교육 등에서 경전 읽기는 내면의 치유와 통찰을 유도하는 대안적 수행이자 학습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는 불교 경전의 문학적 특성과 명상 수행으로서의 경전 읽기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실제 독자나 수행자의 체험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있다. 또한, 경전 읽기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교육, 상담, 자기계발 등 다양한 실천 현장과의 연계 방안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경전 독송이나 사경 수행, 혹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행자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 심리적·정신적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명상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경전 읽기에 대한 이론적 체계가 구축된다면, 불교 경전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역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 경전의 문학적성과 명상 수행의 요소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한 본 연구는 인간의 내면 성장과 정신적 건강을 지향하는 응용불교적 접근으로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경전이 지닌 문학적 특성과 명상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경전 읽기가 수행적 독서이자 심리적 치유의 가능성을 지닌 수행법임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불교 경전은 비유와 상징, 시적 언어와 서사 구조 등을 통해 독자의 정서에 깊이 호소하며, 이는 정서적 환기, 감정의 자각, 자아 성찰 및 존재에 대한 통찰을 유도하는 문학적 기제로 작용한다. 본 논문은 경전 읽기 행위가 마음챙김(mindfulness)의 주요 요소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수행자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내면의 감정을 수용함으로써 심신의 안정을 추구하는 명상 수행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특히 경전 읽기는 집중명상과 통찰명상의 특성을 아우르며, 정서적 치유와 자기조절, 자비심 확장을 촉진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를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전 읽기가 현대 사회의 교육, 상담, 자기계발 등의 영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내적 수행 방식임을 제안하였다. 다만 본 논문은 이론적 고찰에 주력하고 있어,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효과 검증과 독자 집단에 따른 적용 차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불교 경전을 문학적성과 명상수행의 통합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응용불교의 확장 가능성과 함께 정신건강 및 영성교육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주제어

경전읽기, 문학적성, 명상, 치유, 『법화경』

참고문헌

妙法蓮華經 (T09).

강기선(2010). 화엄경 입법계품의 문학적성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기선(2013). 十二分教의 수사기법과 붓다의 교화방법. 동아시아불교문화, 14, 157-181.

강기선(2014). 『화엄경』 「세주묘엄품」의 문학적 표현방법에 대한 분석. 한국불교학, 70, 475-507.

- 강기선(2017). 「화엄경」 「십지품」의 사상에 담긴 문학적 비유와 철학적 성찰. 철학논총, 89(3), 1-30.
- 강기선(2018). 『화엄경』 「십화향품」에 담긴 현대 문학적 성찰 연구. 동아시아불교문화, 34, 3-39.
- 강기선(2021). 『화엄경』 「여래현상품」의 문학적 표현. 동아시아불교문화, 46, 239-266.
- 강기선(2023a). 화엄경의 문학적 성찰 연구 - 불교문학으로 분석한 화엄경 -. 철학논총, 112(2), 1-21.
- 강기선(2023b). 『화엄경』의 문학적 성찰 연구 『화엄경』의 중심사상에 담긴 문학적 성찰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60, 381-410.
- 강은애(2024). 마음챙김(Mindfulness) 기반 치유문화의 비판적 고찰-MBSR을 중심으로. 불교연구, 60, 309-344.
- 김광민(2012). 불교수행의 경로로서의 經典과 參禪. 도덕교육연구, 24(3), 67-86.
- 김나래(2025). 염불선과 비움에 관한 고찰 - 불성과의 공명을 위한 ‘비움의 소리’. 한국불교학, 113, 73-105.
- 김미정(2015). 명상을 기반으로 하는 경전치유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진(2007). 시조의 문학 치료적 기능에 관한 관찰-16-17세기 강호시조를 대상으로. 시조학논총, 26, 25-54.
- 김선화(2021). 불교 경전의 비유에 담긴 심리 치유의 의미 고찰 - 『법화경』의 ‘법화칠유’를 중심으로 -. 종교교육학연구, 66, 115-135.
- 김희종(2021). 백성옥의 『금강경』 독송 수행법 실천사례 연구. 대각사상, 36, 261-289.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2020).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 서울: 조계종출판사.
- 문영진(2007). 비평 분류 방식의 변모와 서사교육적 가능성- 에이브럼즈 비평 분류 도식의 교육적 활용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9, 363-400.
- 문진진(2021). 불교상담의 우울치료의 현황과 발전 방안 연구. 불교문예연구, 18, 51-82.
- 박찬두(1991a). 경전문학의 가능성과 경전의 문학적 성찰, 불교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화출판공사.
- 박찬두(1991b). 『법화경』(法華經)의 문학적 성찰 연구-서사구조(敍事構造)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16권, 301-333.
- 서영애(2002). 불교문학의 이해, 불교시대사.
- 손강숙(2025). 금강경 기도의 의미 탐색 연구: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 참여자를 중심으로. 명상심리상담, 33, 77-87.
- 손혜숙(2021). 언어와 자각: 명상적 접근을 통한 영미시 읽기. 영미문학교육, 25(2), 63-83.
- 손혜숙, 한신일(2023). 명상과학과 문학치료의 통합적 접근: 영미시 교육을 중심으로. 영미문학교육, 27(1), 145-172.
- 송영숙(2016). 명상과 치유에 기반한 포교 활성화. 한국불교학, 77, 607-639.
- 신진범, 이경란, 구자경, 김민화, 김현희, 손혜숙, 이민용, 정선혜 공역(2023). 시치료 : 이론과 실제, 제3판. 시그마프레스. Nicholas Mazza (2021). Poetr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 신진욱(2024). 드디어 시작하는 명상 입문, 불광출판사.
- 안양규(2019). 불교명상의 의학적 적용. 불교상담학연구, 13, 121-157.
- 안유숙(2020). 경전 독송(讀誦) 수행의 교학적 함의에 관한 일고. 宗學研究, 3, 71-95.
- 양승규(2010). 티베트의 지관(止觀) 수행체계 연구 - 까말라설라의 『수습차제』를 중심으로. 불교와 사회(구 불교사상과 문화), 2, 153-193.
- 여태동(2024). 한국 선명상(禪冥想) 정체성 확립방안 연구. 대각사상, 42, 205-234.
- 연소영(2025). 敦煌 <金剛般若波羅密經講經文>에 대한 불교문학적 연구. 중국어문논역총간, 56, 3-37.
- 윤희조(2024). 명상상담의 이론적 토대와 연구현황. 禪學(선학), 68, 175-207.
- 이승재(2024). 독자반응이론과 불경번역: 『숫타니파타』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22(2), 133-155.
- 장순란(2017). 서양문학연구로서의 서사이론과 서사학.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36, 221-242.
- 장은화(2015). 미국 불교명상 수행의 비교연구-선, 티베트명상, 위빠사나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2(1), 421-452.
- 전재성(2015). 숫타니파타-붓다의 말씀. 한국빠알리성전학회.
- 정효구(2015). ‘시적 감동’에 관한 불교심리학적 고찰. 한국문학논총, 71, 127-160.
- 주성옥(2012). 심리치료의 언어로서 은유와 그 불교적 의미. 동아시아불교문화, 12, 34-56.
- 천윤성, 김은영(2022). 기도집중수행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관음신행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70, 185-205.
- 한귀은(2006). ‘비유’를 통한 자아 탐색하기, 그 통합적 교육 방안. 국어교육, 121, 405-435.
- 황수경(2024). 생명존중 교육을 위한 명상상담 지도자의 역할과 과제. 宗學研究, 12, 43-76.
- 불교신문(2011. 3. 24). 경전공부도 수행, 이것이 바로 올바른 간경수행. 서울: 불교신문.
<https://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835> 인용: 2025년 3월31일.